

BIXPO 2019...세계 에너지 신기술 만나다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광주시·한전 공동 다음달 6~8일 3일간 DJ센터서 열려
60개국 310개사·전력 전문가 참석 51개 국제컨퍼런스
열린음악회·특산물 장터·문화탐방 등 시민축제의 장

광주시는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다음달 6~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 째를 맞는 BIXPO(빅스포)는 한국전력이 광주전남지역과의 공동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벨리 허브를 널리 알리고, 미래 전력기술의 트렌드와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전력 에너지 분야 글로벌 산업 엑스포다. 'BIXPO 2019'는 등록기준 3만명, 참가기업 310개, 세계 60여 개국 글로벌 전

력 유틸리티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력분야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1개 국제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BIXPO에서는 ▲전력분야최신기술을 선보이는 신기술 전시회 ▲잠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합을 벌이는 국제발명대전 ▲세계 각국의 글로벌 전력회사 CT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CTO포럼 ▲에너지 분야 석학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신기술 국제컨퍼런스 ▲채용설명회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

기업과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엑스포 기간 광주시는 (사)광주관광컨벤션뷰로와 함께 BIXPO 관람객과 참가기업에게 불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다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막 다음날인 7일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조경기장에서는 KBS열린음악회가 개최된다. 입장권은 BIXPO 관람객, 특산물장터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엑스포 기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특산물장터도 열린다.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자리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과 공예품 등이 전시, 판매된다. 마술, 음악, 버블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입장료를 지불하면 특산물장터 이용권을 바우처로 배부 받아 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전국 대학생 대상 초청투어도 마련됐다. 한국전력공사 분사, 광주전남 배전센터, 에너지벨리 조성 현장 등을 방문하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동근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BIXPO는 미국에 실리컨밸리가 있듯이 대한민국은 에너지벨리가 있음을 홍보하고 그 중심에 광주가 있음을 알리는 기회가 된다"며 "올해는 지역민 공유 프로그램을 발굴해 에너지산업의 메카도시로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9일 광주시 북구가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학습공동체, 주민조직네트워크, 지역활성화, 제도정책 등 4개 분야에서 총 4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구, 주민자치박람회 4개분야 우수사례

광주시 북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서 18회 연속 수상했다. 북구는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학습공동체, 주민조직네트워크, 지역활성화, 제도정책 등 4개 분야에서 총 4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에서 402건의 사례가 접수돼 1차 서류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8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북구는 참여·소통·공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이 돼 직접 마을을 변화시켜 나간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병호 기자 jusbh@

삼각동은 인형극을 소재로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확장시켜 학습공동체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학습공동체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용봉마을공동체는 18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협치를 기반으로 마을민주주의를 구현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매곡동은 '더불어 잘사는 우리동네 만들기 매곡동 자치회합상생 마을공동체'로 북구는 제도 정책 분야에서 '삶을 바꾸는 혁신, 우리가 함께 만드는 행복북구'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5개 골프장 고독성 농약 검출 안돼

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5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 잔류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디아공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28일 4종이 미량 검출됐다. 검사는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유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 2회에 걸쳐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 항목은 고독성농약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사용허가 된 일반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이다. 검사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4종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스메디케어 합동 포럼 28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코스메디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병역관 합동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메디케어 산업'은 광주시가 개척하는 영역으로, 타 지역의 화장품 산업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화장품에 의료와 기기 및 서비스를 융복합한 신개념 산업이다.

동네서점에서 책 바로 빌려보고 반납하세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시립도서관 내년부터 시행
내달 6일까지 참가 서점 모집

광주시립도서관은 이용자가 보고 싶은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반납하고, 반납된 책은 정리 후 도서관 소장자료로 비치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용자 독서생활을 돕고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신청 가능한 도서는 출간된 지 5년, 정가 3만원 이내 도서다. 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에서 총 10권 이상 소장 중인 도서, 자료내용 및 형태가 도서관 소장도서로 부적합한 도서(수첩서, 스티커북 등)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시행에 앞서 시립도서관은 11월 6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서점을 모집한다. 대상은 광주시내 등록된 지역 서점으로 이메일(kej032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대형 체인 서점, 온라인 서점 등은 제외된다. 시립도서관은 사업 참여를 희망한 서점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심사

를 진행하고, 12월에는 최종 선정된 서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열린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립도서관 자료팀에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광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민들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책을 볼 수 있고, 지역 서점에는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서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함께 만들어요"

11월3일 풍암동 생활체육공원
'2019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하는 '2019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가 다음달 3일 오후 1시 서구 풍암동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광주시 주최, 광주시수의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식전공연으로 훈련견 시범을 선보이

고, 이어 무료 동물등록(선착순 50마리), 행동 및 건강상담, 반려동물 응급처치 요령, 반려견과 함께하는 코스산책, 반려동물 가족 장기자랑, 동물상식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비만견 관리요령을 알려주는 특별 강연 '비만견 질병이다'도 운영된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반려동물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